평화 리더십을 생각하며

글 · 강정모 streamwk@gmail.com

평화 리더십의 개념

'평화 리더십' 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첫째는 평화를 만드는 리더십(peacemaking leadership)이라는 의미이다. 즉 평화를 창조해내는 과정 속에서 발휘되어야할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는 평화의 리더십(leadership of peace)이다.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적 상태를 좋아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면 개념적으로는 통합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이 개념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양태가 무척 다르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를 좋아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를 좋아해도 평화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화를 만드는 것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대가와 책임을 요구받는다. 미국의 반전 평화활동가인 다니엘 베리건 신부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외치기를, 우리 평화를 갖자! 그러나 동시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자.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말자,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 손상을 입지 말자, 우리는 감옥이나 나쁜 평판이나 관계의 단절 같은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서 평화를 얻지 못한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적어도 전쟁을 하는 것만큼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위급하며, 아무래도 분열을 일으키며, 아무래도 불명예와 감옥과 죽음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의 말처럼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단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무척 혐오하고, 싫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평화 리더십' 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우선, 평화를 만드는 리더십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평화를 좋아하는 두 번째의 의미도 놓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다보면 반평화와 혼돈을 어쩔수 없이 겪게 되고, 그러다보면 평화의 감수성을 잃어, 내면의 평화가 흔들려 궁극적인 좌표마저 잃어버릴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굳센 의지만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일을 지속할 수 없다. 또한 궁극적인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할 과정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드는 리더십은 만드는 과정 중에 평화를 느끼고, 누릴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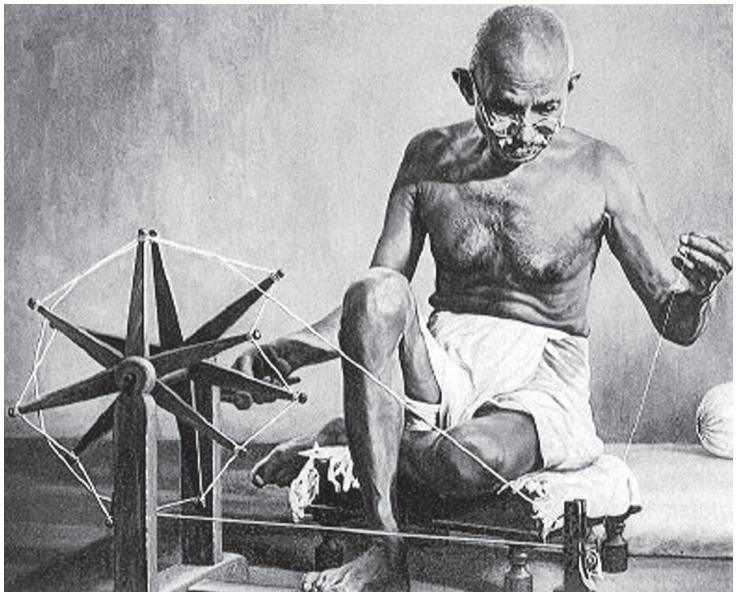
평화 리더십의 정의와 요건들

"세계에 대한 자기 내면의 편견과 무지를 지속적으로 자각하고 변혁하려고 노력하며, 두려움을 넘어선 의식의 힘으로 폭력적 상황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책임감"

평화 리더십은 일차적으로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기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나를 제외한 우주와 세계에 대한 무지를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 무지에 대한 자각은 역설적으로 의식의 확장이다. 그 다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지에 대한 자각은 최소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의식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평화를 향한 긍정적 힘의 발휘가 가능하다.

모든 리더십이 그런 것처럼 평화 리더십도 힘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이 때의 힘은 세기가 아니라 질(質)이다. 힘은 수치심(羞恥心), 죄의식 상태에서도 발휘되며, 두려움의 상태, 욕망이 가득한 상태, 자존심에 고양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발휘된다. 현실적인 힘의 세기로는 무척 강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태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아무리 가공할만한 힘이라도 그 힘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평화는 반드시 '용기' 이상의 의식수준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써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폭력적 상황에서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적, 영적(정서적), 육체적, 관계



적으로 통합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평화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힘'이 투여되어질 지점이기도 하다. 먼저 폭력적 상황을 감지해야 한다. 즉 평화적 감수성이 충만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나, 평화적 감수성이 충만해지는 것이나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평화 리더십은 번거롭더라도 '폭력 민감도'와 '평화 감수성'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 같은 지점에서 만나지만 다른 체험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폭력과 갈등이라는 '자극(stimulation)'에 어떻게 '반응(response)'할 것인가이다. 평화 리더십은 이러한 자극에 '비폭력(nonviolence)'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받는다. 비폭력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작업이다. 당위(當爲)적인 마음으로는 오히려 잘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용기가 전제되어 있지만 비장한 마음만으로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자기만 이러한 비폭력을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룹이 이러한 비폭력적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궁극적 승리에 대한 희망과 감동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지막에 '책임감(responsibility)'이라고 마무리하였다. 스티븐 코비는 책임감(responsibility)을 response + ability 즉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풀이했다. 평화 리더십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비폭력으로 반응하는 능력(힘)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 리더십과 시민운동

평화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는 생소한 내용이다. 평화 리더십이라고 명명되는 세미나들은 남북문제에 국한된 정치적, 제도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참고할 이론들이 별로 없다. 물론 현 한국사회에서 남북문제는 평화문제에서 일차적인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남북문제는 남북간의 정치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진보, 민주정권이 남북문제를 잘 풀어 전향적인 통일과 화해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해도 이러한 것을 지속가능하게 할 남한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남북의 평화적 모색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정권에서 시민사회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전략과 제도와 대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을 포함한 통합적, 내면적,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인격적인 평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말씀과 함석헌 선생의 말씀은 예언자적이다.

"분열해 있는 것은 소위 지도자뿐이요, 민중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민중인 데 주인의 심부름꾼인 지도자들이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분열만 일삼으면 주인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시멘트와 모래가 콘크리트가 되는 과정과 같은 작용을 통해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선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몽양 여운형)

"단적으로 말해볼까? 이제라도 우리가 살려면 통일이 되어야지 남북이 하나로 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알지. 그것은 누구나 다른 말이 없을 것이다. 하나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백 가지 이론, 천 가지 수단을 다 그만두고 어린 아이도 다 알 것이 남한만이 우선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는 아니 될 것이다." (함석헌)

평와 리더십과 관련해 넬슨 만델라, 간디, 마틴 루터 킹의 삶, 내면, 고뇌, 판단, 행동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들의 삶에서 평화 리더십의 요소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고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나는 평화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좀 더 이것이 시민교육과 시민운동에 기여한다면 특히 나와 같은 젊은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결코 거대하거나 특별하여 자신과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며, 자신의 삶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동기부여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하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준다면 좋겠다.

글 **강정모** | 청년평화센터 푸름 간사